

간호 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조하은* · 안유하 · 류수민 · 임재영 · 김혜경[†]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2019년 8월 28일 접수: 2019년 9월 26일 수정: 2019년 9월 27일 채택)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HaEun Jo* · YuHa Ahn · SuMin Ryu · JaeYoung Lim · HeyKyoung Kim[†]

Department of Nursing, Jungwon University

(Received August 28, 2019; Revised September 26, 2019; Accepted September 27, 2019)

요약 :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간호 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편성과 비교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2019년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총 184부의 자료를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성격, 간호학 선택 동기, 간호직의 미래전망, 간호사 이미지 및 전공만족도를 예측변수로 간호전문직관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43.637$,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간호전문직관 총 변화량의 63.6%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긍정적 자아상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고 학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학생,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 직관, 간호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and to presents basic data for making positive nursing professionalism. A survey was held to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Chungcheong cities from May 30 to June 4, 2019. 184 copies were in the fin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As a result,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were followed by character, motivation for nursing, future prospects of nursing,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The multiple regression explanatory power was 63.6percent of the total chang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k777@jwu.ac.kr)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to create positive image through positive self-image and enhance learning satisfaction in order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ism.

Keywords : University Students, Image, Major satisfaction, Professionalism, Nursing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히 변화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는 확대되고 있으며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취업의 용이성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이유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간호 직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어가고 있다.

간호 대학생들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숙련된 전문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직업에 대한 긍지가 높은 전문적이며 긍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한다[1]. 그러나, 한편으로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여전히 자율성과 독자성이 부족한 역할을 수행하며, 힘들고 고된 직업이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존재하고 있다 [2-3]. 그 예로 병원간호사가 동료 선배 간호사의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곤 한다[4-5].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사의 긍지, 소명감, 업무수행 및 환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6], 간호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잠재능력 개발은 물론이고 간호에 대한 정책결정, 학생들의 진로결정, 대중들의 간호서비스에 대한 인식, 간호사의 자아 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7]. 간호 대학생이 보는 간호사의 이미지가 사회적 인식과 차이가 있다면 간호전문직관이 적절히 형성되지 못하며, 졸업 이후 임상에 나갔을 때 간호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에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8]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 의식적 견해로써 간호사가 전문직으로 나아가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간호 대학생처럼 전문적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학교육에서부터 올바르게 확립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9-10]. 자신이 하고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한 직업세계를 잘 이해할 때 생기는 것으로 진로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전공만족[11-12]과 긍정적이며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직업만족, 간호업무수행능력, 조직의 몰입정도를 높이고 [13-14],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정도는 낮아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를 잘 이행하며[17-18].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인성과 태도, 자세 등과 관련하여 예비간호사로서의 자기 모습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8]. 즉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 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19], 대상자, 타 의료인, 보건관련 인력 등에게 인식되는 간호사 이미지 역시 긍정적인일 때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20].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임상수행능력 등 다양한 변인들이 있고,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와와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에게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교육을 포함한 교과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의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대상자의 간호사의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1.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의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
- 1.2.3. 대상자의 간호사의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1.2.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충청권 거주 대학생으로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30부터 6월 4일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 학생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동의서와 설문지를 나누어주었다. 연구를 허락한 후에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장 될 것이고, 자료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구두와 서면을 통해 알렸다. 자료의 탈락과 손실을 대비하여 207부의 자료를 배부하였고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84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3.1.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했을 때 최소 표본 수 16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인 184명은 통계적 검정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독립변수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종속변수인 간호전문직관을 측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 교육학 교수 1인 총 3인의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에 포함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학년, 성격은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의 선택 문항을 두었고, 간호학 선택 동기로는 적성에 맞아서, 취업률이 높아서, 성적에 맞춰서 그리고 타인의 권유로의 선택 문항을 두었으며 간호 직에 대한 미래전망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선택문항을 두고 표시하게 하였다.

2.3.2.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 척도는 송인자[21]가 개발한 도구를 김형자[4]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이미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7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척도는 이동재[22]의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여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1 이었다.

2.3.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을 위해 이시라[23]의 연구에서 사용된 간호전문직관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3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고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0이었다.

2.4.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for Window Program을 이용하였으

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84명의 간호 대학생 성별은 남학생이 44명(23.9%), 여학생이 140명(76.1%)이었다. 1학년 83명(45.1%), 2학년 18명(9.8%), 3학년이 40명(21.7%)이고 4학년은 43명(23.4%)였다.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답한 이는 166명(90.2%)이며 부정적

인 성격으로 답한 이는 18명(9.8%)였다.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로는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100명(54.3%), 입시성적에 맞춰서 26명(14.1%), 타인의 권유로 42명(22.8%), 취업률이 높아서 16명(8.7%)였다. 간호 직에 대한 미래전망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164명(89.1%), 부정적이라는 20명(10.9%)였다.

3.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가 느끼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최대 190점, 최소 94점, 그리고 평균 148.91 ± 17.94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92 ± 0.47 점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최대 90점, 최소 49점, 그리고 평균 71.29 ± 9.50 점이었으며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96 ± 0.53 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최대 115점, 최소 48점이었으며 평균 89.88 ± 11.51 점으로 나타났고 각 문항별 5점 만점으로 3.91 ± 0.50 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는 Table 3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84)

Categories		N(%)
Gender	Male	44(23.9)
	Female	140(76.1)
Grade	Grade 1	83(45.1)
	Grade 2	18(9.8)
	Grade 3	40(21.7)
	Grade 4	43(23.4)
Character	Positive	166(90.2)
	Negative	18(9.8)
Motivation of nursing choice	Has an aptitude	100(54.3)
	Along with the grade	26(14.1)
	Recommendation from others	42(22.8)
	High employment rate	16(8.7)
Future prospects of nursing job	Positive	164(89.1)
	Negative	20(10.9)

Table 2. The degree of the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N=184)

Variables	Max/Mini	Total Items M±SD	Item M±SD
Image of nurses	94/190	148.91± 17.94	3.92±0.47
Major satisfaction	49/90	71.29±9.50	3.96±0.53
Nursing professionalism	48/115	89.88±11.51	3.91±0.50

Table 3. Difference of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N=184)

Categories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MD±SD	t/F(p)	MD±SD	t/F(p)	MD±SD	t/F(p)	
Gender	Male	3.97±0.49	.884	4.10±0.50	2.043	3.99±0.59	1.267
	Female	3.90±0.46	(.378)	3.91±0.53	(.042)	3.88±0.47	(.207)
Grade	Grade 1	3.96±0.47a		4.03±0.54		3.97±0.51	
	Grade 2	3.61±0.37b	4.321	3.84±0.35	1.700	3.69±0.45	1.883
	Grade 3	3.83±0.46ab	(.006)	3.82±0.58	(.169)	3.83±0.56	(.134)
	Grade 4	4.03±0.45a		3.99±0.48		3.94±0.42	
Character	Positive	3.94±0.47	2.158	4.00±0.53	3.193	3.95±0.49	3.698
	Negative	3.69±0.41	(.032)	3.59±0.37	(.002)	3.51±0.44	(<.001)
Motivation of nursing choice	Has an aptitude	3.99±0.45a		4.10±0.49b		3.99±0.48b	
	Along with the grade	3.82±0.48ab	4.092	3.80±0.48ab	5.966	3.87±0.48ab	3.958
	Recommendation from others	3.92±0.47a	(.008)	3.81±0.54ab	(.001)	3.86±0.54ab	(.009)
	High employment rate	3.58±0.39a		3.73±0.53a		3.55±0.34a	
Future prospects of nursing job	Positive	3.95±0.46	2.956	4.01±0.50	3.489	3.94±0.49	2.475
	Negative	3.63±0.48	(.004)	3.58±0.60	(.001)	3.65±0.54	(.014)

(scheffe 사후검정)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남성(4.10±0.50)이 여성(3.91±0.53)보다 높았고(t=2.043, p=.04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상자가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은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이고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대상자가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는 고학년인 4학년(4.03±0.45)과 저학년인 1학년(3.96±0.47)이, 2학년과 3학년보다 긍정적으로 높았으며(t=4.321, p=.006)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은 저학년인 1학년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가 긍정적인 성격일 때(3.94 ± 0.47) 부정적인 성격일 때(3.69 ± 0.41)보다 간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았고($t=2.158, p=.032$), 긍정적 성격(4.00 ± 0.53)이 부정적 성격(3.59 ± 0.37)일 때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t=3.193, p=.002$) 간호전문직관도 긍정적 성격(3.95 ± 0.49)일 때 부정적 성격(3.51 ± 0.44)일 때 보다 높았고($t=3.69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간호학 선택 동기로는 적성에 맞아서(3.99 ± 0.45)가 가장 높았고, 취업률이 높아서(3.58 ± 0.39)가 가장 낮았으며($F=4.092, p=.008$), 전공만족도도 적성에 맞아서(4.10 ± 0.49)가 가장 높았고, 취업률이 높아서(3.73 ± 0.53)가 가장 낮았으며($F=5.966, p=.001$), 간호전문직관도 적성에 맞아서(3.99 ± 0.48)가 가장 높았으며 취업률이 높아서(3.55 ± 0.34)가 가장 낮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Scheffe 사후검정에서 유의하게 집단 구분이 되었다.

대상자의 간호직의 미래 전망이 긍정적일 때(3.95 ± 0.46), 부정적일 때(3.63 ± 0.48)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았으며($t=2.956, p=.004$), 긍정적일 때(4.01 ± 0.50)가 부정적일 때(3.58 ± 0.60)보다 전공만족도도 높았고($t=3.489, p=.001$), 긍정적일 때(3.94 ± 0.49) 부정적일 때(3.65 ± 0.54)보다 간호전문직관도 높았으며($t=2.475, p=.014$)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

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날수록 전공만족도($r=.678, p<.001$), 간호전문직관($r=.737, p<.001$)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r=.701, p<.001$)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정도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격, 간호학 선택 동기 및 간호직의 미래 전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가능한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성격은 부정적임을, 간호학 선택 동기 중 취업률이 높아서를 그리고 간호 직에 대한 미래전망에서는 부정적임을 준거변수로 가변수(더미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잔차분석, 영향력진단,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한 잔차분석으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1.731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고 독립성임을 알 수 있었다. 영향력 진단을 위한 Cook's Distance 검정결과 모든 측정치가 .000~.149로 나타나 1.0이상인 개체가 없어 모형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인자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279~.939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

Table 4. Correlation on Matrix of Variables

(N=184)

Variables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r(p)		
Image of nurses	1		
Major satisfaction	.678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737 (<.001)	.701 (<.001)	1

Table 5.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N=184)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ed R ²	F(p)
	7.895	4.825		1.636	.000			
Character								
Negative								
Positive	4.296	1.817	.111	2.364	.019			
Motivation of nursing choice								
Has an aptitude								
Along with the grade	2.624	1.993	.114	1.317	.190			
Recommendation from others	4.114	2.292	.123	1.795	.074	.636	.621 (<.001)	43.637
High employment rate	2.820	2.149	.103	1.313	.191			
Future prospects of nursing job								
Positive								
Negative	-.442	1.775	-.012	-.249	.804			
Image of Nurses	.301	.041	.469	7.351	.000			
Major satisfaction	.435	.080	.359	5.432	.000			

는 1.065~2.969로 모두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은 배제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63.6%(R²=.636, Adj R²=.621)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3.637, $p<.001$). 대상자가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beta=.469$)가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전공만족도($\beta=.359$), 성격($\beta=.111$)순으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가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B=.301, $p<.001$)가 긍정적이고, 전공만족도(B=.435, $p<.001$)가 높을수록, 성격(B=4.296, $p=.019$)이 긍정적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 및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92점 이었고, 이시라[23].의 연구에서는 3.75점, 심지어, 염은이와 도영숙[24]의 연구결과 3.85점으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이 생각하는 간호 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지만[25]. 그럼에도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므로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이미지 척도를 세부분항별로 봤을 때, 간호사는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다.’, ‘간호사는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한 직업이다.’라는 문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에 반해 ‘간호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편이다.’, ‘간호사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는 역할 영역과 사회참여 영역의 문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간호의 전문성을 주로 간호의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어 인식하며 간호사는 의사의 일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가져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고 인지하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 주미경과 신계영[2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전문적 간호사 이미지의 필수요건이 되

는 자율성과 독자성,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전공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96점으로 이시라[23]의 연구결과 3.77, 최현주[27]의 연구결과 3.79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간호학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가 맞아서 선택했다는 경우 전공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간호 직에 대한 미래전망이 긍정적일 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았다. 성별과 전공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전공 선택 동기가 입원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본인의 의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높았고[28], 미래의 전망이나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결과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5점 만점에 3.91점 이었고, 이동재[22]의 연구 3.73점, 이시라[23]의 연구 3.75점 선행연구 결과에 비해 높았다. 일반적 특징 중 성격, 간호학 선택 동기 및 간호 직에 대한 미래 전망이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인의 성격과 간호학 선택의 동기가 맞을 경우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긍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하였다[23].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6-17]. 또한 간호 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도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27].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성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3.6%였다. 이는 홍은영[30]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31]. 앞으로 복합적인 임상상황에서 다양하

고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해야하고 광범위한 지식과 훈련된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간호사의 길을 준비하는 간호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는 삶의 방향 설정에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과 제언

본 연구결과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도 높아지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성격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 만족도, 성격이 영향요인이었으므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이로써 스스로의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습과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창출하고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대상자의 수와 범위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하며,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성격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5, No.1, pp.54-63, (2009).
2. G. H. Park. "College of Nursing by

- General, Transfer and RN-BSN Comparison of Life Nurse Im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unnam University, (2012).
3. H. S. Jung, Y. 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4, NO.1, pp.29-38. (2010).
 4.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529>
 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92865&code=61121111&cp=nv>
 6. S. A. Jee, H. J. Mun, S. S. Han, M. S. Kim, S. B. Gwon. *Nursing Management I*, Sumoonsa, (2000).
 7. J. A. Kim, S. H. Lee. “Analysis of Studies on Image of the Nurses Performed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9, No.2, pp.199-211, (2003).
 8. Y. M. Gwon, E. J. Yoo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3, No.3, pp.285-292, (2007).
 9. S. H. Jung. “*Nurses’ Ethical Attitudes Related to DNR and Nursing Professiona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wangdong University, (2007).
 10. K. S. Kim. “Patterns of Job Values about the Elderly Care of Social Welfare College Students”, *Welfare Study for the Elderly*, Vol.32, No.-, pp.357-376, (2006).
 11. J. W. K. Geiger, J. S. Davit.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19, No.12, pp.50-58, (1988).
 12. E. S. Sim.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Levels According to Gender, Grade Level, and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won University, (2003).
 13. Y. S. Moon, S. J. Han, “The Effect of Nurses’ Self-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 Tubes on Organizational Immersio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1, pp.72-79, (2011).
 14. K. Hallin and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1, No.1, pp.62-70, (2008).
 15. J. I. Hwang, F. Lou, S. S. Han, F. Cao, W. O. Kim, and P. Li, “Professionalism: the major factor influencing job 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nurs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56, No.3, pp.313-318, (2009).
 16. J. Y. No, S. J. Park, D. Y. Ba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and Nurse’s Imag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18, No.2, pp. 88-94. (2012).
 17.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3, pp. 363-373, (2012).
 18. H. H. Cho,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548-557, (2014).
 19. E. J. Yoon, Y. M. Gwon, O. H. A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20. E. H. Seo. “Nurses’ Image Perceived by Nursing and Health Allied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5, No.4, (2009).

21. I. 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i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s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he Korean Nurse*, Vol.32, No.2, pp. 51-63, (1993).
22. D. S.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 Perceived by the Public.",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1995).
23. S. R. Lee. "The Effects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i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24. J. A. Seong, E. Y. Yeom, G.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Society*, Vol.14, No.11, pp.798-809, (2014).
25. J. S. Ju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1998).
26. M. K. Joo, G.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510-521. (2012).
27. H. J. Choi.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and Medical Industry*, Vol.10, No.4, pp.225-237, (2016).
28. J. H. Seo. "Effects of Nursing Image, Satisfaction in major, Ego-Resili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8).
29. Y. S. Ham, H. S. Kim.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19, No. 3, pp. 363-373, (2012).
30. E. Y. Hong. "A Convergence Study on the Mediated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f Students at Nursing College", *Journal of the Korean Fusion Society*, Vol.8, No.10. pp.85-93, (2017).
31. I. H. Moon, G. W. Lee, S. H. Jung, "Effect of Image Making Programs on Image Making Efficacy, Positive Thinking, Self-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1, No. 1. pp.122-132, (2015).